

일부 여자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절망감과의 관련성

조은민
대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Hopelessness Amo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Eun-Min Cho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일부 여자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절망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D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 334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망감 수준의 분포는 「정상 범위군」 61.6%, 「경도 절망감군」 23.1%, 「중등도 절망감군」 12.9%, 「중증 절망감군」 2.4%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절망감은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0$), 학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71$, $p<0.0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절망감이 나타날 위험비는 학업스트레스 총점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9.27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여부, 규칙적 식사 여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여자고등학생들의 절망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hopelessness amo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334 female high school students located in D-city during the period from August 20, 2018 to September 20, 2018. As a result, the distribution of the level of hopelessness among those surveyed was 61.6% for the normal range group, 23.1% for the mild range group, 12.9% for the moderate range group, and 2.4% for the severe range group. The level of hopelessness, according to the academic stress of the study subjec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igher academic stress group than that in the lower academic stress group ($p=0.000$). Hopelessness also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r=0.371$, $p<0.01$).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isk ratio of hopelessnes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9.27 times in the higher academic stress group when compared to that in the lower academic stress group.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hopelessness were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conversation with parents, eating regularly, stress due to tests, stress due to studies and stress about career paths. Given the above results, the hopelessnes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academic str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that can properly control academic stress factors.

Keywords : Female High School Student, Academic Stress, Hopelessness, Correlation Coefficient,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rresponding Author : Eun-Min Cho(Daejeon University)

email: qwertyuiopasdfsdf@naver.com

Received September 30,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Revised October 31, 2019

Published January 31, 2020

1. 서론

절망감은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 절망감이 장기화되고 심화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 활동수준 저하, 흥미상실, 주의집중 곤란, 의욕상실 및 수면장애 등의 심각한 장애가 동반된다[2].

인간은 자신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할 때 희망을 느끼고, 성취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절망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목적 지향적 행동은 내적 동기에 합당한 사고와 감정을 동반하게 되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이룩할 때는 만족과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반대로 자신의 목표가 좌절되고 이루지 못할 때 낙망,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3].

절망감은 우울의 결정요인이면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절망감이 활성화되면 우울이 유발된다고 여겨진다[2,4]. 절망감은 자살의 주요원인이고, 자살생각을 갖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5,6]. 우울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우울보다는 절망감이 자살생각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절망감은 우울의 충분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7].

우리나라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급격한 환경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주로 학업, 교우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외모 콤플렉스, 선생님과의 갈등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중 1위는 바로 '학업 스트레스' 이다[8](Statics KOREA, 2013).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필수적으로 여러 차례의 시험을 쳐야 하며, 그 결과는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험, 과제 등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크고 핵심적인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다[9].

특히 고등학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량이 가중되어 대학입시 및 진로문제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욱 커진다[10]. 이로 인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정적인 정서의 원인이 되며 학습흥미 저하, 학교 부적응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11]. 또한 과중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인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느끼고[12], 심각하게는 학교중퇴, 비행 등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어[13], 사회적응 뿐 아니라 나아가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14].

고등학생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때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15],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16]. 이는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고등학생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기 쉬울 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13]. 이처럼 학업스트레스는 고등학생에게 부정적 정서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의 수준 및 이에 대한 대처방식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대처방식 또한 고교생과 여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17].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8] 절망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의 핵심적인 특성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도 절망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적이 성별에 따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20]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학업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절망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절망감과 관련된 개인적 위험 요인과 환경적 위험 요인이 단편적으로 조사되었을 뿐이며, 관련 요인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밝히거나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절망감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절망감과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여자고등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생활 특성, 가정생활 특성 및 건강관련행위특성에 따른 절망감 수준을 알아보고, 특히 학업스트레스와 절망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생활특성, 가정생활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절망감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절망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절망

감이 나타날 위험비를 산정한다.

넷째,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D광역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표본수의 선정은 G*power 3.1 프로그램 [21](Faul 등, 2007)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예측변인 18개, 효과크기 0.05,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양측검정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318명이었으며, 탈락율을 고려하여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4개교에서 학년별로 1학년씩 12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1학급당 30명씩 전체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설문 응답자 26명을 제외한 334명(회수율 92.8%)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조사 방법

조사는 C 대학교의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승인번호 : 201808-SB-118-01)을 받은 후,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사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기입요령을 설명한 다음 작성토록 한 후 회수하였다.

또한 위 학생들은 만 18세 이하 취약군으로 부모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설문조사 전에 배포해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진행 하였다.

2.3 연구에 사용한 변수

2.3.1 인구사회학적 및 학교생활 특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신장 및 체중에 의한 비만도를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최근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검사에서 측정된 값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비만도(Degree of obesity)는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표준

체중에 의한 Broca's Index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표준체중은 [신장(cm)-100]×0.9 공식에 의해 구하였으며, 비만도는 [(실제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100으로 계산하였다. 비만도의 구분은「정상(9.9 이하)」, 「과체중(10.0 ~ 19.9)」 및 「비만(20.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학교생활 특성으로는 학년, 학업성적, 교우관계,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학업성적은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교우관계는 「좋다」, 「좋지 않다」로, 학교폭력 경험 유무는 「있다」, 「없다」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로 구분하였다.

2.3.2. 가족생활 특성

가정생활 특성으로는 부모결혼여부,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대화여부, 가정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부모결혼여부는「양친 모두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만 있거나 양친 모두 없다」로 구분하였다. 가정의 경제 상태는「어렵다」, 「보통이다」, 「좋다」로 구분하였고, 부모와의 대화여부는 「자주 한다」, 「간혹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허용적이다」, 「허용적이다」, 「엄하다」로 구분하였다.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로 구분하였다.

2.3.3 건강관련행위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은 수면시간, 규칙적 식사 여부, 규칙적 운동시행 여부, 음주 경험 여부, 흡연 경험 여부, 및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수면시간은 1일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 ~ 8시간 이하군은 「적절하다」, 7시간 미만이거나 8시간 초과군은「부적절하다」로, 규칙적 식사 여부는 「한다」, 「하지 않는다」로, 규칙적인 운동시행 여부는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1주일에 3회 이상, 회당 20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한다」, 「하지 않는다」로, 음주 경험 여부는 지금까지 1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경험을 기준으로 「있다」, 「없다」로, 흡연 경험여부는 지금까지 한 두 모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경험을 기준으로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고,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 「좋지 않다」로 구분하였다.

2.3.4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의 측정은 Oh와 Chun[22]이 개발한

105문항의 학업스트레스 측정도구를 Lee[23]가 42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성적, 시험, 수업, 공부 및 진로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총득점 합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85이었다.

2.3.5 절망감

절망감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측정하는 Beck 등[1]의 Beck Hopelessness Scale(BHOP)를 Shin 등[24]이 번안한 한국어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BHOP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측정하도록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은 「예」에, 그렇지 않은 문항은 「아니오」를 선택한다. 부정적인 문항에는 「아니오」1점, 「예」0점의 점수를 주었고, 긍정적인 문항에는 역으로 「예」1점, 「아니오」 0점의 점수를 주어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0점까지로 분포되고 있으

며, 높은 점수일수록 절망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eck의 점수범위에 따라 BHOP 총점이 3점 이하인 군을 「정상범위」, 4점에서 8점까지를 「경도 절망감」, 9점에서 14점까지를 「중등도 절망감」, 15점 이상을 「중증 절망감」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01이었다.

2.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2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생활 특성, 가정생활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절망감의 비교는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와 절망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에 의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절망감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hopelessnes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chool life characteristics

Variables	N	Hopelessness				χ^2	p-value
		Normal (≤ 3)	Mild (4 ~ 8)	Moderate (9 ~ 14)	Severe (15)		
Degree of obesity						8.758	0.131
Normal	320	201(62.8)	73(22.8)	38(11.9)	8(2.5)		
Overweight	7	3(42.8)	2(28.6)	2(28.6)	0(0.0)		
Obesity	7	2(28.6)	2(28.6)	3(42.8)	0(0.0)		
School grade						2.714	0.856
1st	173	103(59.5)	39(22.5)	27(15.7)	4(2.3)		
2nd	99	62(62.6)	24(24.3)	10(10.1)	3(3.0)		
3rd	61	41(66.1)	14(22.6)	6(9.7)	1(1.6)		
Academic achievement						26.904	0.000
High	49	37(75.5)	3(6.1)	9(18.4)	0(0.0)		
Middle	194	129(66.5)	44(22.7)	17(8.8)	4(2.0)		
Low	91	40(44.0)	30(33.0)	17(18.7)	4(4.3)		
Relationship with school fellow						3.089	0.330
Good	319	198(62.1)	72(22.6)	42(13.1)	7(2.2)		
Poor	15	8(53.3)	5(33.3)	1(6.7)	1(6.7)		
School violence experienced						2.275	0.489
Yes	14	8(57.1)	3(21.4)	2(14.3)	1(7.2)		
No	320	198(61.9)	74(23.1)	41(12.8)	7(2.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34.030	0.000
Satisfied	278	188(67.6)	59(21.2)	28(10.1)	3(1.1)		
Dissatisfied	56	18(32.1)	18(32.1)	15(26.9)	5(8.9)		
Total	334	206(61.6)	77(23.1)	43(12.9)	8(2.4)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및 학교생활 특성별 절망감 수준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망감 수준의 분포를 보면, 「정상 범위군」이 61.6%, 「경도 절망감군」이 23.1%, 「중등도 절망감군」이 12.9%, 「중증 절망감군」이 2.4%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및 학교생활특성별 절망감 수준의 분포를 보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p=0.000$),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p=0.000$) 절망감수준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만도, 학년, 교우관계 및 학교폭력 경험 유무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3.2 가정생활 특성별 절망감 수준

조사대상자의 가정생활특성별 절망감 수준의 분포를 보면, 부모와의 대화여부에서 대화를 하지 않을수록 절망감수준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0.000$), 그 밖에 부모결혼여부, 가정의 경제 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정생활 만족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3.3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절망감 수준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절망감 수준의 분포를 보면,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4$), 음주 경험이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16$),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p=0.000$) 절망감수준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수면시간, 규칙적인 운동여부 및 흡연경험 여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3.4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절망감 수준

조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절망감 수준의 분포를 보면, 학업스트레스 총점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절망감수준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 하위영역별로 보면, 절망감 수준의 분포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5$),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0$),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0$),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0$) 절망감수준의 분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3.5 절망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절망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절망감은 학업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371$, $p<0.01$), 학업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r=0.162$, $p<0.05$),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r=0.235$, $p<0.05$),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

Table 2. Distribution of hopelessness according to family life characteristics

Variables	N	Hopelessness				χ^2	p-value
		Normal (≤ 3)	Mild (4~8)	Moderate (9~14)	Severe (15~)		
Parents status						2.909	0.362
Two parents at home	316	197(62.3)	71(22.5)	41(13.0)	7(2.2)		
Single parents/none	18	9(50.0)	6(33.3)	2(11.1)	1(5.6)		
Perceived family income						8.048	0.200
Low	36	18(50.0)	11(30.6)	4(11.1)	3(8.3)		
Middle	223	143(61.4)	55(23.6)	31(13.3)	4(1.7)		
High	65	45(69.3)	11(16.9)	8(12.3)	1(1.5)		
Conversation with parents						18.241	0.000
Often	269	177(65.8)	56(20.8)	33(12.3)	3(1.1)		
Occasionally	52	23(44.2)	18(34.6)	8(15.4)	3(5.8)		
Never	13	6(46.2)	3(23.0)	2(15.4)	2(15.4)		
Parental rearing attitudes						3.585	0.733
Very acceptable	58	39(67.3)	13(22.4)	6(10.3)	0(0.0)		
Acceptable	215	127(59.0)	51(23.7)	30(14.0)	7(3.3)		
Strict	61	40(65.6)	13(21.3)	7(11.5)	1(1.6)		
Satisfaction of family life						3.585	0.279
Satisfied	301	189(62.8)	68(22.6)	38(12.6)	6(2.0)		
Dissatisfied	33	17(51.5)	9(27.3)	5(15.2)	2(6.1)		
Total	334	206(61.6)	77(23.1)	43(12.9)	8(2.4)		

($r=0.327$, $p<0.01$),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r=0.373$, $p<0.01$)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r=0.389$,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절망감 수준은 학업스트레스 총점 및 하위영역인 성적, 시험, 수업, 공부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스트레스 총점 및 하위영역인 성적, 시험, 수업, 공부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3.6 절망감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의 관련성

조사대상자의 절망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절망감을 정상범위군(BHOP 총점 3점 이하)과 절망감군(BHOP 총점 4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단변량 모델과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변수인 학업성적,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여부, 규칙적 식사 여부, 음주경험 여부 및 주관

Table 3. Distribution of hopelessness according to health related behavior factors

Variables	N	Hopelessness				χ^2	p-value
		Normal (≤ 3)	Mild (4~8)	Moderate (9~14)	Severe (15)		
Sleeping time (hour)						2.108	0.555
Adequate(7 ~ 8)	61	35(57.4)	13(21.3)	11(18.0)	2(3.3)		
Inadequate(<7 or 8)	273	171(62.6)	64(23.4)	32(11.7)	6(2.3)		
Regular eating						13.455	0.004
Yes	212	146(68.9)	40(18.9)	23(10.8)	3(1.4)		
No	122	60(49.2)	37(30.3)	20(16.4)	5(4.1)		
Regular exercise						2.385	0.496
Yes	59	38(64.4)	15(25.4)	6(10.2)	0(0.0)		
No	275	168(61.1)	62(22.5)	37(13.5)	8(2.9)		
Alcohol drinking						10.300	0.016
Yes	161	90(55.9)	36(22.4)	29(18.0)	6(3.7)		
No	173	116(67.0)	41(23.7)	14(8.1)	2(1.2)		
Cigarette smoking						2.532	0.426
Yes	24	12(50.0)	7(29.1)	4(16.7)	1(4.2)		
No	310	194(62.6)	70(22.6)	39(12.6)	7(2.2)		
Perceived health status						18.107	0.000
Good	276	184(66.7)	54(19.5)	33(12.0)	5(1.8)		
Poor	58	22(37.9)	23(39.7)	10(17.2)	3(5.2)		
Total	334	206(61.6)	77(23.1)	43(12.9)	8(2.4)		

Table 4. Distribution of hopelessness according to academic stress

Variables	N	Hopelessness				χ^2	p-value
		Normal (≤ 3)	Mild (4~8)	Moderate (9~14)	Severe (15)		
Total score of academic stress						46.847	0.000
Low	167	132(79.0)	26(15.6)	8(4.8)	1(0.6)		
High	167	74(44.3)	51(30.5)	35(21.0)	7(4.2)		
School record stress						4.796	0.182
Low	179	118(65.9)	34(19.0)	24(13.4)	3(1.7)		
High	155	88(56.8)	43(27.7)	19(12.3)	5(3.2)		
Test stress						12.554	0.005
Low	167	117(70.1)	33(19.8)	16(9.6)	1(0.6)		
High	167	89(53.3)	44(26.3)	27(16.2)	7(4.2)		
Class stress						31.162	0.000
Low	177	133(75.1)	30(16.9)	11(6.3)	3(1.7)		
High	157	72(46.5)	47(29.9)	32(20.4)	5(3.2)		
Study stress						45.482	0.000
Low	170	133(78.2)	28(16.5)	8(4.7)	1(0.6)		
High	164	73(44.5)	49(29.9)	35(21.3)	7(4.3)		
Career stress						41.121	0.000
Low	187	143(76.5)	30(16.0)	12(6.4)	2(1.1)		
High	147	63(42.9)	47(32.0)	31(21.0)	6(4.1)		
Total	334	206(61.6)	77(23.1)	43(12.9)	8(2.4)		

†: The total score of academic stress and its sub-area scor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low and high by median values.

적인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다변량 모델에 의해 절망감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의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단변량 모델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총점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절망감이 나타날 위험비가 9.45배(ORs=9.45, 95%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hopelessness and academic stress

Variables	Hopeless-ness	Total score of academic stress	Score of school record stress	Score of test stress	Score of class stress	Score of study stress
Total score of academic stress	0.371**					
Score of school record stress	0.162*	0.752**				
Score of test stress	0.235*	0.797**	0.623**			
Score of class stress	0.327**	0.814**	0.445**	0.550**		
Score of study stress	0.373**	0.921**	0.593**	0.655**	0.745**	
Score of career stress	0.389**	0.763**	0.435**	0.427**	0.564**	0.666**

*: p<0.05, **: p<0.01

Table 6.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hopelessness† and academic stress

Variables	Crude		Adjusted‡	
	ORs	(95% CI)	ORs	(95% CI)
Total score of academic stress				
Low	1.00		1.00	
High	9.45	(1.18~75.49)	9.27	(1.07~80.26)
School record stress				
Low	1.00		1.00	
High	1.31	(0.34~5.03)	1.16	(0.32~4.08)
Test stress				
Low	1.00		1.00	
High	5.53	(1.03~30.52)	4.15	(0.86~19.84)
Class stress				
Low	1.00		1.00	
High	4.69	(0.98~22.46)	3.83	(0.72~20.27)
Study stress				
Low	1.00		1.00	
High	9.81	(1.82~78.34)	8.90	(1.49~79.76)
Career stress				
Low	1.00		1.00	
High	5.32	(1.11~25.46)	3.95	(0.76~20.56)

†: The score of hopelessness was dicotomized into 2 groups: normal group(≤3) and hopelessness group(4).

‡: Adjusted for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of school life, conversation with parents, regular eating, alcohol drink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abl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o the hopelessness

Variable	B	SE	Beta	t	p-value
Academic achievement (high(/middle<))	-0.064	0.562	-0.006	-0.114	0.909
Satisfaction of school life (dissatisfied/satisfied)	1.983	0.560	0.180	3.542	0.000
Conversation with parents (occasionally/often)	1.333	0.512	0.128	2.603	0.010
Regular eating(yes/no)	0.808	0.422	0.094	1.915	0.046
Alcohol drinking(yes/no)	-0.541	0.400	-0.066	-1.352	0.177
Perceived health status (good/poor)	0.720	0.536	0.066	1.342	0.180
School record stress(high/low)	0.004	0.049	0.006	0.089	0.929
Test stress(high/low)	-0.048	0.050	-0.065	-0.947	0.034
Class stress(high/low)	0.012	0.057	0.016	0.215	0.830
Study stress(high/low)	0.104	0.046	0.203	2.268	0.024
Career stress(high/low)	0.169	0.048	0.230	3.514	0.001
Constant	-2.346	1.090		-2.153	0.032

Adjusted R² = 0.270

CI=1.18~75.49)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위영역에서의 절망감이 나타날 위험비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5.53배(ORs=5.53, 95% CI=1.03~30.52),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9.81배(ORs=9.81, 95% CI=1.81~78.34),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5.32배(ORs=5.32, 95% CI=1.11~25.46)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다변량 모델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총점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절망감이 나타날 위험비가 9.27배(ORs=9.27, 95% CI=1.07~80.26)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위영역에서의 절망감이 나타날 위험비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8.90배(ORs=8.90, 95% CI=1.49~79.76)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6].

3.7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변수인 학업성적,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여부, 규칙적 식사 여부, 음주경험 여부,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학업스트레스(성적, 시험, 수업, 공부 및 진로)를 독립변수로, 절망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여부, 규칙적 식사 여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즉,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 부모와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군일수록, 규칙적 식사를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절망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7.0%이었다 [Table 7].

4. 고찰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과 부모의 지나친 사회적 기대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25].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해로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중 절망감은 우

울, 자살생각 등의 충분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여자고등학생들의 인가사회적 특성, 학교생활 특성, 가정생활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절망감 수준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여자고등학생으로 한 이유는 기존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그 대상자가 성별 구분 없이 진행되었고, 여자고등학생이 남자고등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 및 불안, 우울 등이 유의하게 높았던 연구 [26]를 토대로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스트레스 및 절망감에 대한 측정도구는 그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들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도 모두 0.7 이상으로 연구결과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망감 수준은 「경도 절망감군」 23.1%, 「중등도 절망감군」 2.4% 으로 총 38.4% 절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38.4%가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고생으로서 여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절망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그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학교 및 가정특성별 절망감 수준의 분포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보면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im [27]은 성적에 따른 절망감의 차이분석 결과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절망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 [28]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절망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여, 청소년기 때에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학교친구들 혹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등에 만족하지 못할 때 절망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절망감 수준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을수록, 음주경험이 있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음주경험이 있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더 안 좋다고 느껴져 그에 따른 절망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절

망감 수준의 분포는 학업스트레스 총점이 높을수록, 하위 영역에서는 시험, 수업, 공부,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여자고등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학업스트레스가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자고등학생의 절망감을 낮추기 위한 지지체계 조성과 개개인의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업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독립심과 의지력을 기르며 미래에 대한 희망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절망감 감소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절망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절망감은 학업스트레스의 총점 및 하위영역에서의 성적, 시험, 수업, 공부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절망감 수준은 학업스트레스 총점 및 하위영역인 성적, 시험, 수업, 공부,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29-31]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고되었는데, 절망감은 우울의 충분조건이므로 학업스트레스와 절망감과의 상관관계 또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절망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망감에 유의하였던 변수를 통제한 다변량 로지스틱 모델에서 절망감이 나타날 위험비는 학업스트레스 총점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9.27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위영역에서의 절망감이 나타날 위험비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8.90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절망감이 나타날 위험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절망감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여부, 규칙적 식사여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조사대상 학생들의 절망감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여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가 D광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전체 여자고등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여러 지역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확장한 후속 연구가 시행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이지만,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응답편의(response bias)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연구가 미비하였던 여고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생활특성, 가정생활특성 및 건강관련행위특성에 따른 절망감 수준을 알아보고, 특히 학업스트레스와 절망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절망감에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절망감을 저하시키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여자고등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생활 특성, 가정생활 특성 및 건강관련행위특성에 따른 절망감 수준을 알아보고, 특히 학업스트레스와 절망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D광역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 2, 3학년 학생 334명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절망감 수준의 분포는 「정상범위군」 61.6%, 「경도 절망감군」 23.1%, 「중등도 절망감군」 12.9%, 「중증 절망감군」 2.4%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학교 및 가정생활 특성별 절망감 수준의 분포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p=0.000$),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에서($p=0.000$),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을수록($p=0.000$)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절망감 수준의

분포는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4$), 음주 경험이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16$),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절망감 수준의 분포는 학업스트레스 총점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0$), 하위영역에서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5$),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0$),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0$),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조사대상자의 절망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절망감은 학업스트레스 총점($r=0.371$, $p<0.01$), 하위영역인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r=0.162$, $p<0.05$),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r=0.235$, $p<0.05$),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r=0.327$, $p<0.01$),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r=0.373$, $p<0.01$)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r=0.389$,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6. 조사대상자의 절망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변수를 통제한 다변량 모델에서 절망감이 나타날 위험비는 학업스트레스 총점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9.27배($ORs=9.27$, 95% $CI=1.07 \sim 80.26$)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위영역에서의 절망감이 나타날 위험비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8.90배($ORs=8.90$, 95% $CI=1.49 \sim 79.76$)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7. 조사대상자의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여부, 규칙적 식사 여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7.0%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여자고등학생들의 절망감은 여러 가정생활특성, 학교생활특성 및 건강관련행위특성 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절망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학업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

- [1] Beck AT, Weissman A, Lester D, Trexler L.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 Consult Clin Psychol* 42:861-865, 1974. DOI: <https://doi.org/10.1037/h0037562>
- [2] Beck AT, Steer RA, Manual for the Beck Hopelessness Scale.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 1988.
- [3] Snyder CR, Kevin R, David RS. Hope theor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57-276, 2002.
- [4] O'Connor RC, Connery H, Cheyne WM, Hopelessness: The role of depression, future directed thinking and cognitive vulnerability. *Psycho. Health Med.* 5(2): 155-161, 2000. DOI: <http://dx.doi.org/10.1080/713690188>
- [5] Rifai AH, George CJ, Stack JA, Mann JJ, Reynolds CF. Hopelessness in suicide attempters after acute treatment of major depression in late life. *Am J Psychiatry.* 151(11):1687-1690. 1994.
- [6] Uncapher H, Gallagher-Thompson D, Osgood NJ, Bongar B.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38(1):62-70. 1998. DOI: <http://dx.doi.org/10.1093/geront/38.1.62>
- [7] Gibbs L, Dombrowski AY, Morse J, Siegle GJ, Houck P R, Szanto K. When the solution is part of the problem: problem solving in elderly suicide attempters. *Int J Geriatric Psychiatry.* 24(12):1396-1404. 2009. DOI: <http://dx.doi.org/10.1002/gps.2276>
- [8]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cited 2013 October 31]. Available form: URL:<http://www.kosis.kr>.
- [9] Kim BM.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athematics Learning Motiv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Motivation Type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8(1):25-36, 2014.
- [10] Cho HJ. Self-compass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Well-being. *Graduated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11] Meyer, DK., & Turner, JC. Re-conceptualizing emotion and motivation to learn in classroom contex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006; 18(4), 377-390.
- [12] Cheong SH, Kim SO. The effect of adolescent's emotional regulation and parenting behavior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human life sciences*, 14:89-115, 2011.
- [13] Lee EY, Lee SY.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Emotion Regulation Ability for the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y: Based on Person-Centered Art Therap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25-49, 2012.

- [14] Yoon, SY Chae, G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ental Health Problem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2): 1-24,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12.23.12.1>
- [15] Lee MR, Kim CK, Yeo JI.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Jihaksa, Seoul. p403-413, 2019.
- [16] Son SA. An analysis on the emotion control and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Graduated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17] Chung HH.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even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6(1):98-119, 1997.
- [18] Park HS, KU HY, Chang EH. The Study on Predictors of Depression for Korean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5):715-723, 2007.
DOI: <https://doi.org/10.4040/jkan.2007.37.5.715>
- [19] Kang NM, Cheong HH.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1(2):37-54, 2014.
- [20] Kim MK, Kim YH, Hwang SR, Chung IJ. The Effect of School Grades on Academic Stress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4):165-187, 2012.
- [21]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science. *Behav Res Methods* 2007; 9(2):175-191.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2] Oh MH, Chun SM, Analysis of academic stress fact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Human Understanding*, Seogang University. 15:63-96, 1994.
- [23] Lee 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learning stress :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itud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12.
- [24] Shin MS.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Graduated School of Yonsae University, Doctor's Thesis, 1993.
- [25] Hwang YJ. The Determinants of Perceived Academic Stress as Experienced by High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9(3):85-114, 2008.
- [26] Kim MK, Kim YH, Hwang SR, Chung IJ. The Effect of School Grades on Academic Stress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4):165-187, 2012.
- [27] Lim MR.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stress, despair,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Graduated School of J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8] Bae SY, Yoon HS, Cho YC.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544-554,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544>
- [29] Lee HY, Cho YC. Validation of casual model for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xiety, interpersonal dependency and hopelessness on depression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08-217, 2018.
- [30] Lee MJ, Cho YC. Self-perceived psychosocial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2828-2838,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6.2828>
- [31] Park ES, Cho YC. The effect of social supports, psychological behaviors, and stress on the depression symptoms of college students -validation of casual model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209-218,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209>

조 은 민(Eun-Min Cho)

[정회원]



- 2019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9년 3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간호학 박사과정)
- 2019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강사

<관심분야>

노인간호, 성인간호,